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3 호 | 2018.8.31

“한국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 세계 46 개 도시 중 7 위” (연합뉴스, 8.6)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포함한 한국의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가 세계 46 개 주요 도시 중 7 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런 평가를 담은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 보고서'를 6 일 발표했다.

딜로이트는 2016~2017 년에 세계 46 개 도시의 지하철, 버스, 경전철, 택시, 공유자전거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조사해 성능·탄력성, 비전·리더십, 서비스·배려·만족도 등 크게 3 가지 영역에서 평가했는데 한국의 수도권은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싱가포르가 1 위를 차지했고 베를린, 런던, 헬싱키, 도쿄, 바르셀로나가 2~6 위로 한국의 수도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톡홀름, 파리, 보스턴, 암스테르담, 두바이 등은 한국 수도권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미래 모빌리티 역량평가’에서는 최상위 단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저렴하며 지하철역과 지하철 내부가 넓고 안전해 고객 만족도가 높았다.

[딜메이커]부동산자문 실적 1 위 안진 “올해 동남아시아 지역 자문 확대” (이데일리, 7.25)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재환 부동산그룹 리더
1999년부터 부동산 자문 매진한 베테랑
 양재동 P 타워 매각 종료 코앞...삼성생명 6 개 사옥 매각추진
 베트남 스타레이크 부동산 자문으로 사업 속도



“인프라에너지 인력 16 명까지 포함해 부동산 자문 인력만 80 명입니다. 거래량만 따지면 국내 회계법인 빅 4 중에 매출액이 가장 클 겁니다. 지난해 매출이 150 억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170 억원입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부동산자문파트 인력 및 매출 규모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이같은 성과를 이끈 김재환 회계사(전무·사진)를 24 일 서울 여의도 IFC 본사에서 만났다. 김 전무는 부동산 자문 경력만 20 년째인 베테랑. 1997 년 딜로이트안진에서 회계사로 첫발을 댄 이후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만 폈다.

◇ 부동산자문 한 길만 걸어온 베테랑

그가 지금까지 한 매각 자문 중 가장 큰 빅딜은 1 조 3000 억원 규모의 ‘그랑서울’이다. 이외에도 △지스퀘어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8600 억 원) △파인애플빌딩(4700 억 원) △퍼시픽타워(4300 억 원) △대우건설 빌딩(3900 억 원) △여의도 한화증권빌딩(3200 억 원) 등이 김 전무 손을 거쳐갔다.

현재 맡은 서울 양재동 P 타워 매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건물은 지하 6 층~지상 20 층 규모의 연면적 4 만 4129 m² 규모이며 매각 가격은 3200 억 원이다. 김 전무는 “내달 정도면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생명 사옥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도 그의 몫이다.

◇ 동남아 등 해외부동산 자문도 속도

최근엔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도 활발하다.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은 딜로이트 안진의 힘을 빌려 속도를 내고 있다. 하노이 서호(西湖) 인근에 여의도 면적 3분의 2 크기로 행정·숙박·사무·주거 등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호텔과 오피스 부문 개발 자문도 딜로이트 안진이 맡았다. 부동산자문파트에서 딜로이트 안진이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은 150 억원이다. 올해 상반기는 벌써 70 억원 이상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매출을 올렸다. 작년보다 성적이 좋은 이유는 회사측의 지원 덕이다. 지난 4 월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 토마스 컨설턴트의 한국법인을 인수하고, 6 월에 김 전무를 승진시켜 리더를 맡긴 건 그룹에 힘을 신기 위해서였다. 작년 65 명 수준이던 그룹 인력 규모는 올해 80 명까지 늘었다.

한수원, 총체적 개혁작업에 나선다(에너지경제, 7.15)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위해 딜로이트 컨설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 맡긴 상태.
 -2022년까지 2GW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에 박차
 -탈원전 정책에 맞춰 사명에서 ‘원자력’ 빼는 방안도 검토 중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종합에너지기업’을 기치로 사업영역 변화, 사명 변경 등 총체적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란 사명부터 손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사명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는 빠질 게 확실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수원(대표 정재훈)은 최근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신사업처'를 '신재생사업처'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 부문 인력을 이전보다 약 40% 늘렸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2022년까지 2기가와트(GW)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수원은 사장 직속으로 '변화와 성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딜로이트와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 수력과 신재생 패키지 수출 등이 핵심 재편안 중 일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이 과거에는 원전 운영으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회사였는데 외부에서 준 충격(탈원전 정책)으로 강제 튜닝(조정)을 당했다"며 "이제는 (원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바다로 가서 먹거리를 골라 찾아야 할 기회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사업 영역 조정에 이어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 총체적 개혁작업에 나선다

* 전담 기자 | jk@dk.co.kr 2018.01.15 12:36:29

03 03 03

- '중형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위해 딜로이트컨설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 발간 상태.

- 2022년까지 2GW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형에너지기업'으로 전환에 박차

- 탈원전 정책에 맞춰 사명에서 '원자력' 빼는 방안도 검토 중

[에너지경제신문 편집성 기자]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중형에너지 기업'을 기지로 사업영역 변화, 사명 변경 등 총체적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란 사명부터 손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사명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길 계획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수원(대표 정재훈)은 최근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신사업처'를 '신재생사업처'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 부문 인력을 이전보다 약 40% 늘렸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2022년까지 2기가와트(GW)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마트, 장안동 동부물류터미널부지 매각 '돌입'(더벨, 8.6)

1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개발 어렵다 판단한 듯...딜로이트 안진, 지난달 IM 배포

이마트, 장안동 동부물류터미널부지 매각 '돌입'

1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개발 어렵다 판단한 듯...딜로이트 안진, 지난달 IM 배포

김정현 기자 | 공개 2018-08-08 08:10:08

f t g+ - +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2일 15: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마트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동부물류터미널 부지 매각에 나섰다. 향후에도 개발 추진이 어렵다 판단하고, 유휴 부동산 정리 차원에서 매각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딜로이트 컨설팅을 통해 동부물류터미널 부지 처분 작업에 돌입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달 국내 유수의 부동산디벨로퍼에 투자설명문(IM)을 배포했고, 현재 숏리스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이번 동부물류터미널 부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딜로이트 안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딜로이트 안진은 이마트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포괄적인 형태의 자문을 지속해 왔는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번에도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물류터미널 부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1, 284-1번지에 있다. 부지 면적은 각각 4464㎡, 1만4397㎡로 총 1만8861㎡(5705평)이다. 애초 이 곳은 선창산업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세계가 2005년 10월에 매입했다. 그 후 2011년 회사 분할로 인해 이마트가 소유자로 변경됐다.

수행하면서 이번에도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물류터미널 부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1, 284-1 번지에 있다. 부지 면적은 각각 4464㎡, 1만4397㎡로 총 1만8861㎡(5705평)이다. 애초 이 곳은 선창산업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신세계가 2005년 10월에 매입했다. 그 후 2011년 회사 분할로 인해 이마트가 소유자로 변경됐다.

대체적으로 부동산디벨로퍼업계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높은 가격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인 이마트조차 개발 하지 못한 만큼 디벨로퍼들 역시 △인허가 작업 △지역주민 설득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각가가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안동 283-1번지와 284-1번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당 340만원, 337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2개 필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총 637억원으로 집계된다. 2005년 신세계는 해당부지를 400억원에 매입했다. 공시지가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13년만에 23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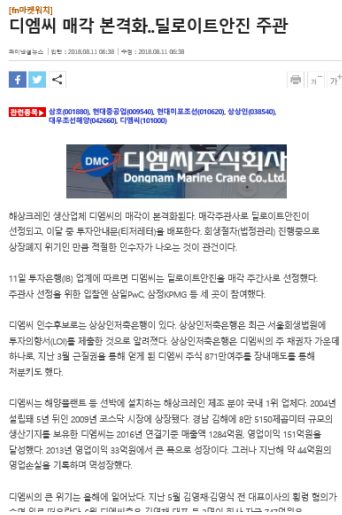
이마트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동부물류터미널 부지 매각에 나섰다. 향후에도 개발 추진이 어렵다 판단하고, 유휴 부동산 정리 차원에서 매각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동부물류터미널 부지 처분 작업에 돌입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달 국내 유수의 부동산디벨로퍼에 투자설명문(IM)을 배포했고, 현재 숏리스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이번 동부물류터미널 부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딜로이트 안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딜로이트 안진은 이마트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포괄적인 형태의 자문을 지속해 왔는데, 일을 성공적으로

디엠씨 매각 본격화...딜로이트 안진 주관(더벨, 8.11)

해상크레인 생산업체 디엠씨의 매각이 본격화된다. 매각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이 선정되고, 이달 중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한다. 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중으로 상장폐지 위기인 만큼 적절한 인수자가 나오는 것이 관건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디엠씨는 딜로이트 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엔 삼일 PwC, 삼정 KPMG 등 세 곳이 참여했다.

디엠씨 인수후보로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투자이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디엠씨의 주 채권자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근질권을 통해 얻게 된 디엠씨 주식 871만여주를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기도 했다.

디엠씨는 해양플랜트 등 선박에 설치하는 해상크레인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2004년 설립돼 5년 뒤인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경남 김해에 8만 515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디엠씨는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 1284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달성했다. 2013년 영업이익 33억원에서 큰 폭으로 성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약 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디엠씨는 국내 유일의 해상크레인 제조업체다. 주요 고객은 현대중공업 계열(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최근 해양플랜트 업황이 부진하지만 대형 선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해상크레인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 1648억원, 부채 963억원으로 채무 규모도 비교적 양호해 적절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